

규정 있으면 뭐 하나... 위험한 작업 멋대로 투입

직업계 고교생 꿈 짓밟는 현장실습 이대론 안된다

<1> 위험에 내던져진 아이들

표준협약서에 수중작업 없고
파개비 제거는 청소년 금지활동
근로기준법·안전수칙도 안 지켜
여수서 참변... 근무시간 위반도
광주·전남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특성화고 고교생이 또 현장실습 중에 숨졌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지난 2017년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제주지역 고(故)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어른들이 직접 해소해야 할 위험 노동을 스무 살도 채 안된 고교생에게 맡겼다. 작업현장에는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낯선 환경에 던져진 현장실습생은 흉년뿐만이 아니다.

전남에서만 47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536명의 어린 학생들이 오늘도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낯선 노동 현장으로 등교하고 있다.

10대 어린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던져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 꽃다운 학생들이 꿈을 키워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 시스템, 적정 노동환경, 안전한 작업 환경 등을 살펴야 할 시기다. 광주일보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위한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지난 8일 오전 여수 해경 구조대가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 중 숨진 여수해양고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 홍정은(18)군 사고와 관련,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전문 구조대가 흥 군이 찾던 12kg짜리 납 벨트를 바다에서 건져냈다. 구조대원이 공기통을 제거하고 수영복과 오리발만 착용하는 등 사고 당시 흥 군의 상황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 납 벨트 착용 시연을 하니 몸이 바다 속으로 쭈욱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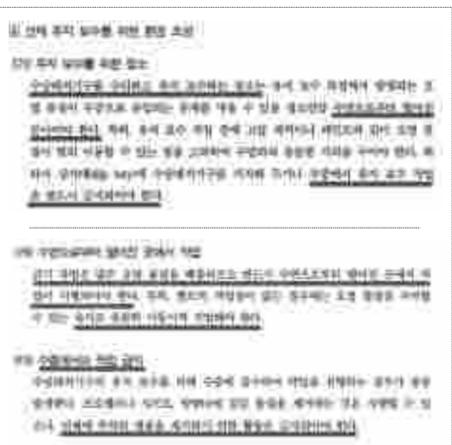
구조대원은 "12kg 납 벨트의 무게를 제대로 된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견디기란 불가능하다. 물 속에 그대로 가라앉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지켜본 흥 군 이모부는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 아니냐"고 울먹였다.

흥 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0분께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어있던 파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현장실습생인 흥 군은 사업주인 A씨의 지시를 받고 바다에 들어갔다. 스킨스쿠버, 잠수 자격증도 없었지만 요트에 걸려있는 사다리에 의지해 8.5m 깊이의 바다에 홀로 들어가 작업을 했다. 처음엔 수경만 착용하고 맨 몸으로 작업했다가 A씨가 구해온 공기통, 오리발, 납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해경은 착용한 장비가 헐거워 고쳐매려고 공기통을 벗었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무거운 납 벨트부터 풀어야 하는데 공기통을 먼저 벗었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 전언이다.

흥군이 지난 9월 27일 A씨의 S요트회사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면서 작성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수중 작업이 들어있지 않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내용 중 '보트선체 관리' 학습모듈에 따른 '선체 유지 보수를 위한 환경 조성' 내용.

흥 군의 표준협약서대로 실습이 진행되기는 커녕,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현장 안전수칙 등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장, 광주일보가 확보한 흥군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14주 간의 세부 실습 계획이 담겨있다. 흥군이 10여일간의 현장실습 기간 했던 요트 청소와 페인팅, 파개비 제거는 '보트선체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획서상 5주차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파개비 제거는 정부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서 금지하는 활동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안에 따르면 '보트선체 관리'의 경우 수중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체에 부착된 파개비 등 생물 제거 활동은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애초부터 현장실습생에게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을 요구했다는 것



여수 해경은 지난 8일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 정박장에서 해경 구조대원을 투입, 현장실습 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 3학년 홍정은 군 사고와 관련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구조대원들이 흥군이 찾던 12kg짜리 납 벨트를 건져올리고 있다.

이다. 근로기준법(65조)도 18세 미만인 자에게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실습생을 상대로한 근무조건도 있으나 마나였다. 흥군은 사업체와 주 35시간, 일 7시간, 최저임금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흥군 아버지 홍성기씨는 그러나 광주일보와의 취재에서 "아들의 퇴근 시간은 매일 밤 10시 전후로 거의 매일 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갔다"고 말했다. 홍씨는 "아들은 출근 시간인 항상 9시보다 30여분 일찍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이었다"며 "매일 13시간 씩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버티내려고 하는 것 같아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았다"며 자책했다.

해당 사업체도 1인 사업체로, 잠수 자격증도 없는 사업주가 실습을 지도·평가하고 안전을 관리하

는 현장전문가로 지정되면서 허술한 현장 실습업체 지정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흥 군 사고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모든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과 현장 실습 제공기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에서만 47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536명의 어린 학생들이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 13개 특성화고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낯선 노동 환경에 던져진 실습생들은 더 늘어난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관계자는 "조사 초기에 여러 문제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수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같은 처지에 놓인 현장실습생들을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물 무서워하는 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바다에 들어갔겠나"

여수 고교생 실습생 빈소 표정

"3개월 버티면 정규직된다 했는데 어두운 바닷속 고통 가슴 찢어져"

지난 8일 찾아가던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장례식장 고(故) 홍정은(18)군 빈소는 유족들과 친구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영정 속 흥군의 얼굴은 엷된 10대 소년이었다. 아버지 홍성기씨는 "아들 영정 사진은 9일 치러지는 선박 관련 자격증 시험을 위해 찍은 것"이라며 "함께 목포 시험장으로 가려고 했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흥군은 자신의 요트에 손님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는 꿈이 있었다고 했다. 특성화고 해양레저 학과를 선택한 것도, 요트업체 현장실습생으로

간 것도 자신의 꿈에 조금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버지 홍씨는 "3개월만 버티면 정규직 된다고 했었다"면서 "물을 무서워하는 아들이 왜 그 일(수중 파개비 제거)을 했을까"라고 울먹였다. 수중작업은 흥군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없는 일이었다고 10대 청소년에게는 금지하는 일이기도 했다. 낯선 환경에 던져진 '실습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남매 중 셋째지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아들이었다고 했다. '요트 맨'이라는 꿈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들어가는 60~80만원의 비용을 자기 힘으로 마련하기 위해 적정 근무 시간조차 훌쩍 넘기면서까지 현장에 있다가 퇴근하는 것도 참아냈다고 한다.

홍씨는 "출퇴근시켜주다가 아들이 요트업체

사장에게 호되게 혼나는 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며 "함께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들은 힘들어서 모두 그만두고 끝까지 버티내 현장실습생이 됐는데..."라며 눈물을 쏟았다.

홍씨는 "아들이 물을 무서워해 학교에서 실시했던 스킨스쿠버 교육과정도 중도에 포기했다"면서 "그런데 수영복을 찾으니 불안하더라"고 했다. 이어 "얼마나 간절했으면 물을 무서워 하는 아이가 12kg짜리 납 벨트를 차고 바다에 들어갈 생각을 했겠나"며 자책했다. 빈소를 지켰던 20여명의 학교 친구들은 "물을 무서워하는 정운이가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 힘들어 했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수=김민석 기자 mskim@
/광주=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하수종말처리 업체 수주 대가 수천만원 쟁겨 강진군수 비서실 직원·일간지 전 주재기자 구속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 관련 개발 업체로부터 수주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강진군수 비서실 직원과 지역일간지 전 주재기자가 구속됐다.

1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강진군 비서실 직원 A씨와 지역일간지 주재기자 출신 B씨 등 2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주 대가성 금품 수천만원을 쟁겨 지역일간지 주재기자 출신 B씨와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지난해 1월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일대 부동산(3필지·매입가 기준 6억 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강진군청 비서실과 지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강진군 가우도 일대 28만 8000㎡에 오는 2024년까지 리조트형 호텔 340실과 풀빌라 118실(단독형34, 테라스형 84실)을 비롯,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라이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민간업체는 지난해 8월 3687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전남도·강진군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이송숙 강진군수의 명절선물 4000만원 상당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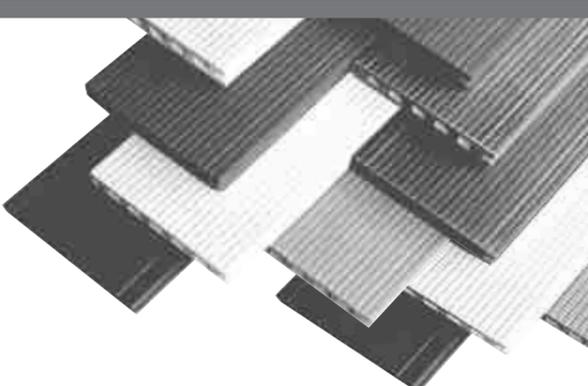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10-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